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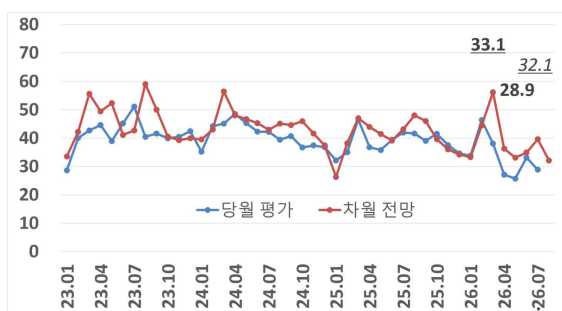
I. 2026년 7월 건설경기평가 및 2026년 8월 전망

■ 7월의 경기평가는 하락, 차월에 대한 기대도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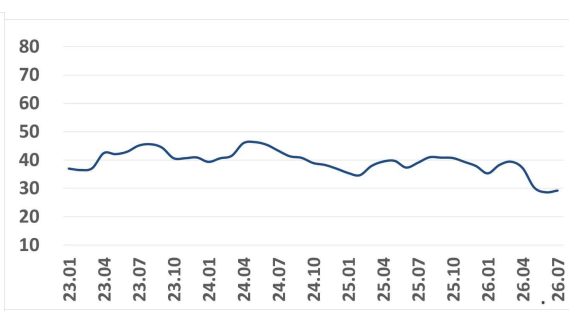
- 7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28.9로 전월(33.1)보다 하락했으며(-4.2p), 이는 전년 동월(41.9)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임(-13.0p). 차월(32.1)에도 유의미한 수준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3.2p), 공사수주의 감소, 수주단가의 하락과 인건비 상승, 건설공사의 대업종화에 따른 혼란 등은 여전하지만 지금은 중동사태 등 대외여건의 영향이 더욱 심각한 상황임.
- 수도권은 39.6(40.0→39.6)으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었고(-0.4p), 지방은 24.3(29.8→24.3)으로 전월 대비 소폭의 하락을 나타냄(-5.5p).

〈표-1〉 2026년 7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26년 8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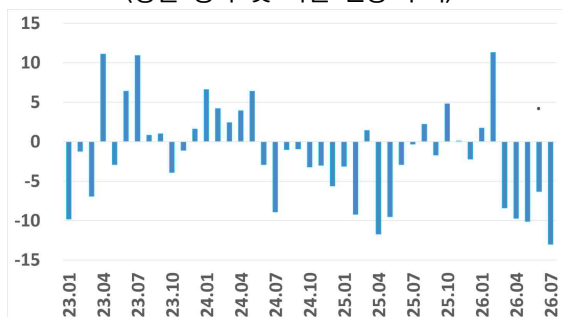
구 분	종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6년 7월 평가	28.9	41.9	39.6	24.3	24.1	29.1
2026년 8월 전망	32.1	48.0	45.8	26.1	34.5	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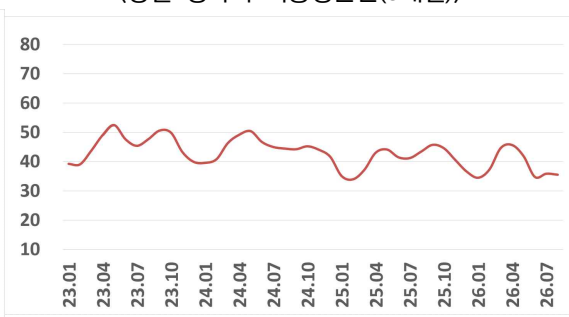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전망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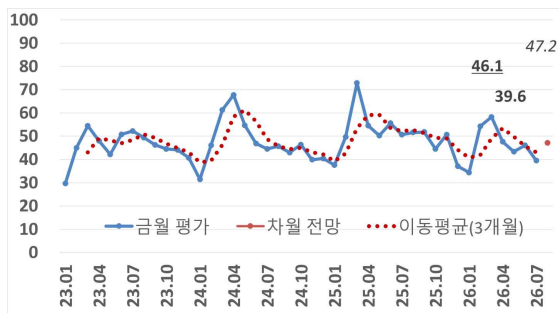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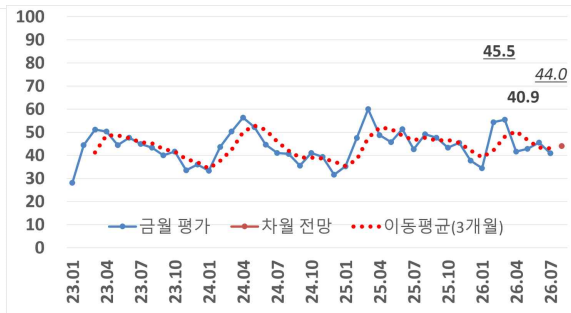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39.6(46.1→39.6)으로 하락하면서(-6.5p), 전년 동월(50.7)보다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11.1p). 하도급수주도 40.9(45.5→40.9)로 전월보다 하락함(-4.6p).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따라 공사물량의 증감이 엇갈리고 있으며, 민간공사에서는 시장수요가 회복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64.0→70.8)이 전월에 이어 상승(+6.8p), 지방(37.5→26.1)은 큰 폭으로 하락함(-11.4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도 수도권(76.0→79.2)이 전월에 이어 상승했으며(+3.2p). 지방(30.8→24.3)은 더욱 하락함(-6.5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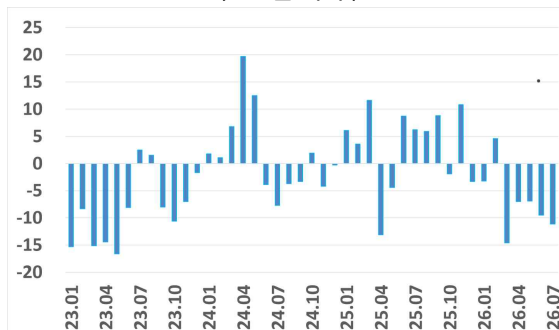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6년 7월 평가	39.6	50.7	70.8	26.1	89.7	29.1
	2026년 8월 전망	47.2	45.3	77.1	34.2	93.1	38.2
하도급 수주	2026년 7월 평가	40.9	42.6	79.2	24.3	93.1	29.1
	2026년 8월 전망	44.0	43.9	68.8	33.3	79.3	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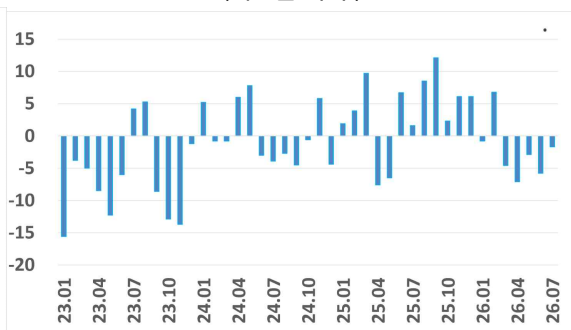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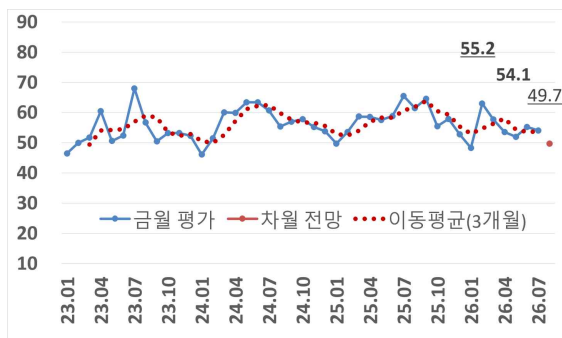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는 전월 수준, 자금조달지수는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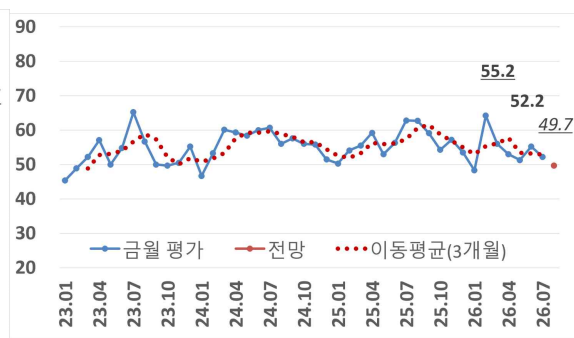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54.1(55.2→54.1)로 전월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1.1p), 차월(49.7)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4.4p). 조사에 참여한 일부 업체는 공사대금의 수금이 어렵다고 답했지만 그보다는 공사수주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수도권(64.0→70.8)은 전월에 이어 상승(+6.8p), 지방(51.0→46.8)도 하락함(-4.2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52.2(55.2→52.2)로 소폭 하락했으며(-3.0p) 전년 동월(62.8) 대비 큰 차이를 보였음(-10.6p), 차월(49.7)에도 연이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2.5p).
 - 수도권(72.0→72.9)은 전월 수준(+0.9p), 지방(47.1→43.2)은 하락함(-3.9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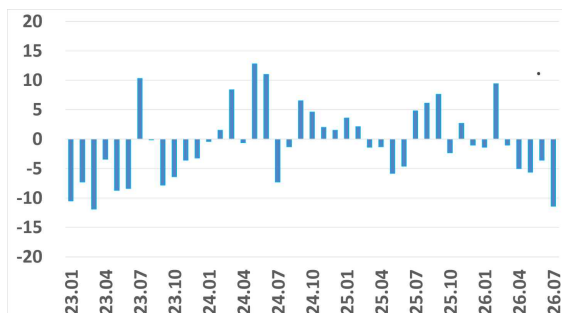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6년 7월 평가	54.1	65.5	70.8	46.8	79.3	50.9
	2026년 8월 전망	49.7	56.8	64.6	43.2	72.4	45.5
자금조달	2026년 7월 평가	52.2	62.8	72.9	43.2	82.8	47.3
	2026년 8월 전망	49.7	57.4	60.4	45.0	69.0	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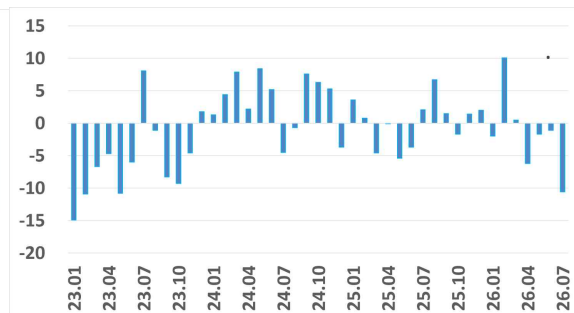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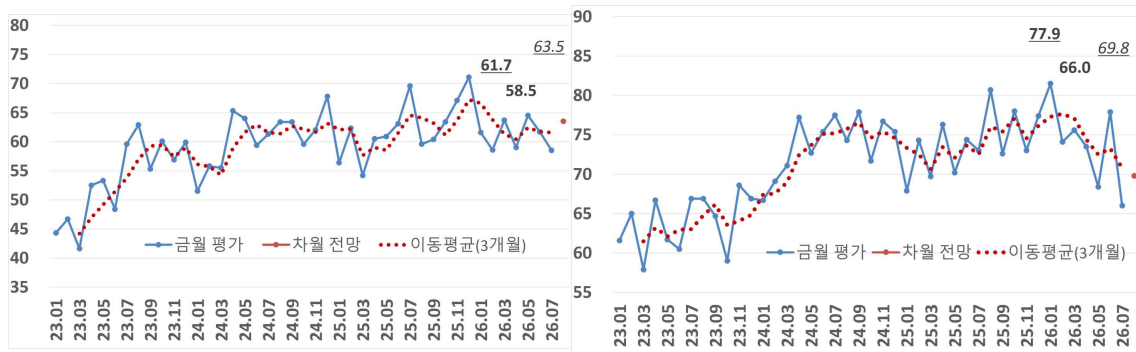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은 연이어 하락, 기능인력수급은 악화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58.5(61.7→58.5)로 하락했으며(-3.2p) 전년 동월(69.6)보다도 크게 낮았음(-11.1p), 일용근로자 채용 등 건설노조에 대한 우려는 공사물량의 감소와 맞물려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 여건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음.
 - 수도권(58.0→58.3)은 전월과 유사(+0.3p), 지방(63.5→58.6)은 하락함(-4.9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는 66.0(77.9→66.0)으로 크게 하락했으며(-11.9p), 전년 동월(73.0)보다 낮았음(-7.0p). 이는 숙련공의 수급문제가 점차 악화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임.
 - 수도권(72.0→66.7)은 소폭 하락(-5.3p), 지방(80.8→65.8)은 크게 악화됨(-15.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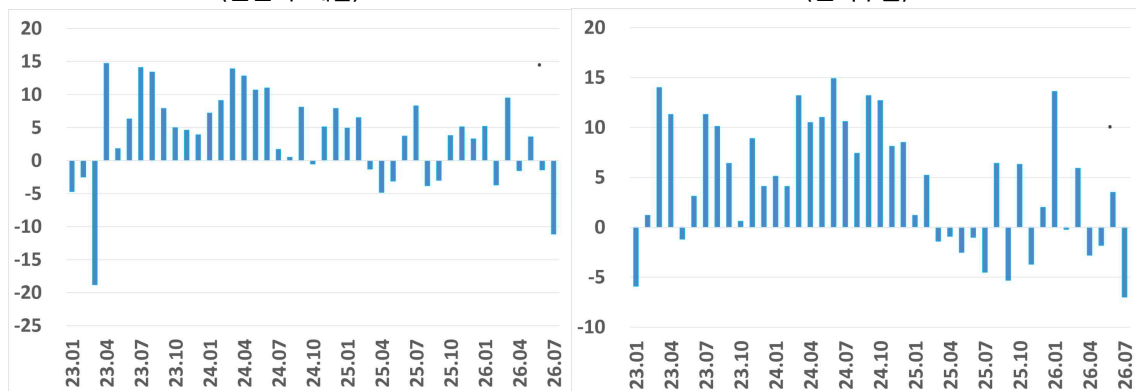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6년 7월 평가	58.5	69.6	58.3	58.6	48.3	72.7
	2026년 8월 전망	63.5	68.2	62.5	64.0	51.7	78.2
인력수급	2026년 7월 평가	66.0	73.0	66.7	65.8	65.5	74.5
	2026년 8월 전망	69.8	75.0	66.7	71.2	62.1	78.2



〈인건비 체감〉

〈인력수급〉



〈인건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인력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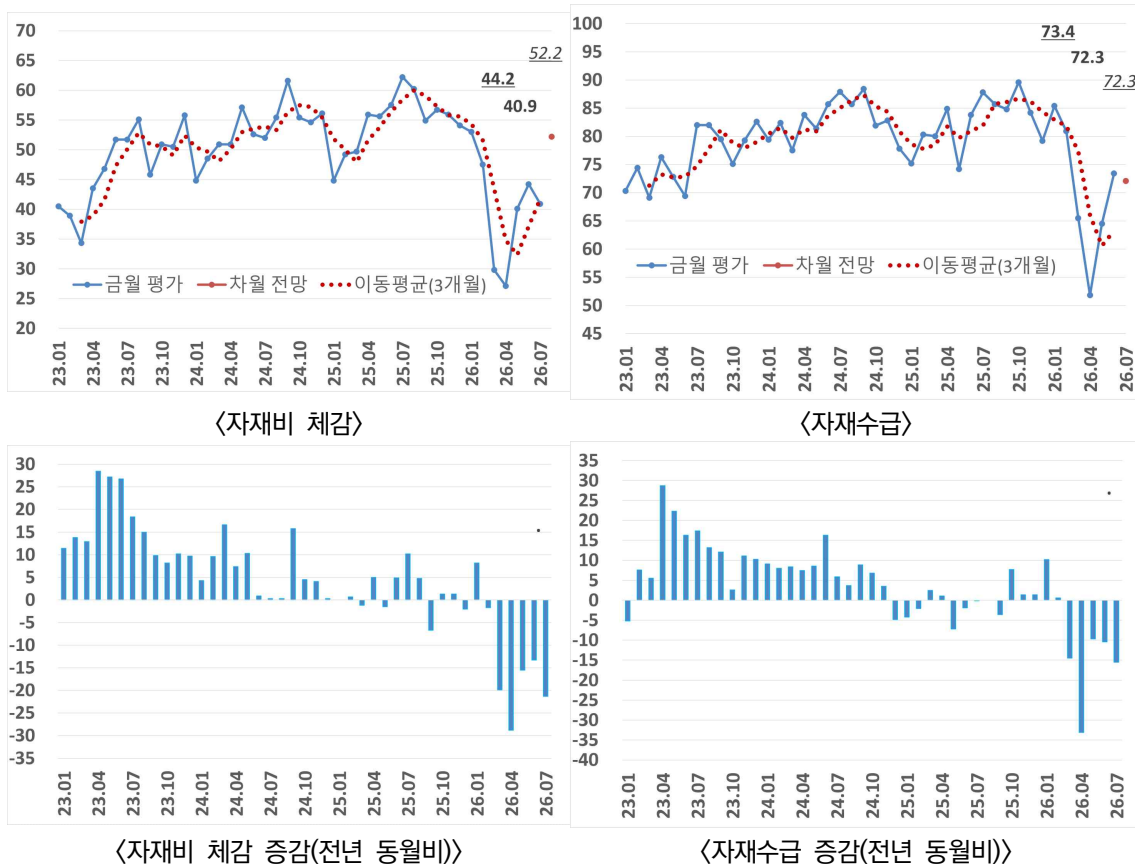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수급²⁾)

■ 자재비지수는 소폭 하락, 자재수급지수는 전월 수준

- 자재비³⁾ 경기실사지수는 40.9(44.2→40.9)로 전월 대비 하락함(-3.3p). 차월(52.2)에는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11.3p), 이는 중동사태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임.
 - 수도권(42.0→35.4)은 하락(-6.6p), 지방(45.2→43.2)은 소폭 하락함(-2.0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72.3(73.4→72.3)으로 전월과 유사했으며(-1.1p), 차월(72.3)에도 동일한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0.0p). 일부에서는 레미콘 등의 수급문제를 지적함.
 - 수도권(72.0→87.8)은 전월에 이어 상승(+15.8p), 지방(74.0→73.0)은 전월 수준임(-1.0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6년 7월 평가	40.9	62.2	35.4	43.2	24.1	56.4
	2026년 8월 전망	52.2	65.5	50.0	53.2	37.9	65.5
자재수급	2026년 7월 평가	72.3	87.8	70.8	73.0	55.2	90.9
	2026년 8월 전망	72.3	87.8	66.7	74.8	51.7	85.5



2)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음(코로나 이전 시기의 지수는 대략 100정도 수준이었음).

3)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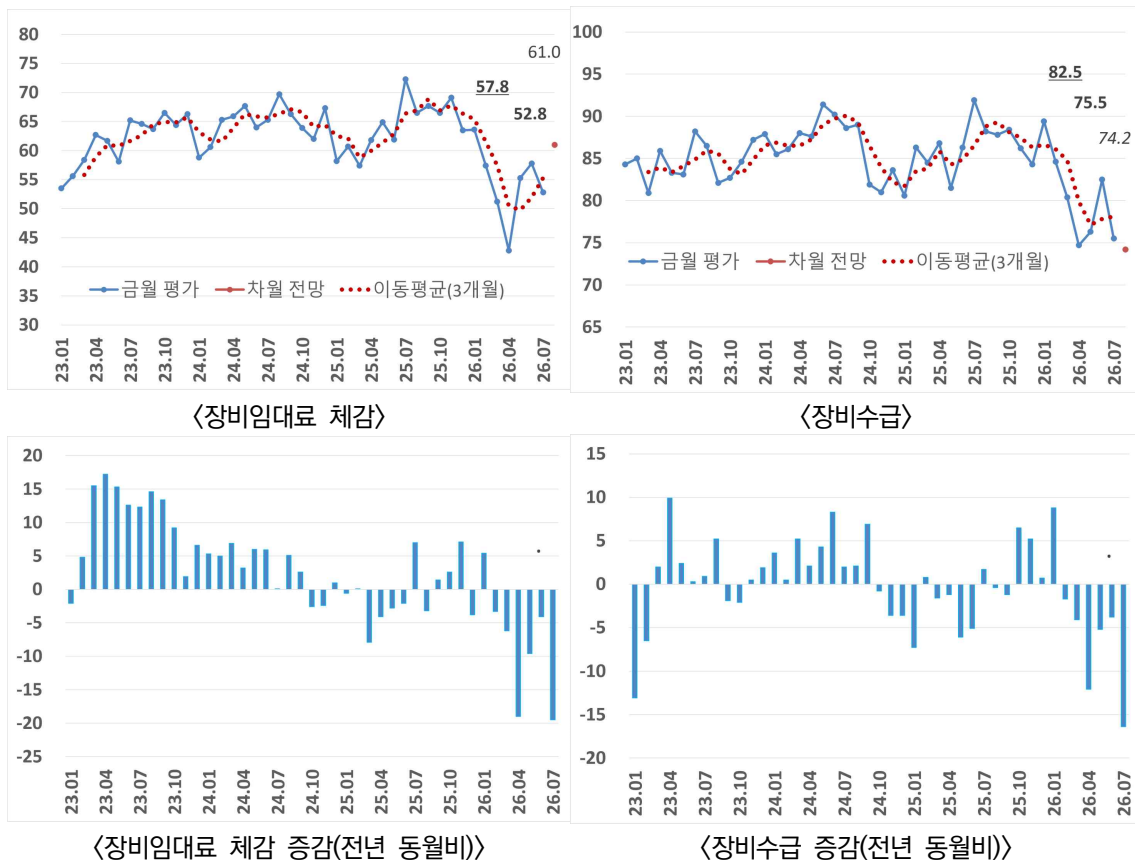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와 장비수급지수 모두 하락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52.8(57.8→52.8)로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5.0p), 차월(61.0)에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1.3p). 장비임대료는 유가처럼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함께 관련 노조와의 조율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함.
 - 수도권(60.0→50.0)은 전월과 유사(+1.4p), 지방(56.7→54.1)은 하락함(-10.5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75.5(82.5→75.5)로 전월보다 하락했으며(-7.0p), 차월(74.2)에도 유사할 것으로 전망됨(-1.3p).
 - 수도권(84.0→85.4)은 소폭 상승(+1.4p), 지방(81.7→71.2)도 크게 하락함(-10.5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임대료 체감	2026년 7월 평가	52.8	72.3	50.0	54.1	44.8	65.5
	2026년 8월 전망	61.0	70.3	58.3	62.2	44.8	76.4
장비수급	2026년 7월 평가	75.5	91.9	85.4	71.2	75.9	87.3
	2026년 8월 전망	74.2	87.8	77.1	73.0	65.5	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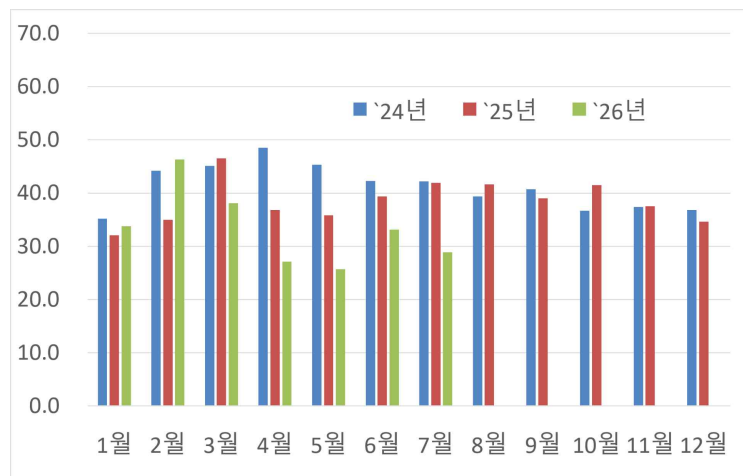


참고: 2026년 7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 분		종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28.9	41.9	39.6	24.3	24.1	29.1
		차월 전망	32.1	48.0	45.8	26.1	34.5	36.4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39.6	50.7	70.8	26.1	89.7	29.1
		차월 전망	47.2	45.3	77.1	34.2	93.1	38.2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40.9	42.6	79.2	24.3	93.1	29.1
		차월 전망	44.0	43.9	68.8	33.3	79.3	38.2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54.1	65.5	70.8	46.8	79.3	50.9
		차월 전망	49.7	56.8	64.6	43.2	72.4	45.5
	자금조달	금월 평가	52.2	62.8	72.9	43.2	82.8	47.3
		차월 전망	49.7	57.4	60.4	45.0	69.0	49.1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58.5	69.6	58.3	58.6	48.3	72.7
		차월 전망	63.5	68.2	62.5	64.0	51.7	78.2
	인력수급	금월 평가	66.0	73.0	66.7	65.8	65.5	74.5
		차월 전망	69.8	75.0	66.7	71.2	62.1	78.2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40.9	62.2	35.4	43.2	24.1	56.4
		차월 전망	52.2	65.5	50.0	53.2	37.9	65.5
	자재수급	금월 평가	72.3	87.8	70.8	73	55.2	90.9
		차월 전망	72.3	87.8	66.7	74.8	51.7	85.5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52.8	72.3	50.0	54.1	44.8	65.5
		차월 전망	61.0	70.3	58.3	62.2	44.8	76.4
	장비수급	금월 평가	75.5	91.9	85.4	71.2	75.9	87.3
		차월 전망	74.2	87.8	77.1	73.0	65.5	83.6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최근 3년간의 SC-BSI 비교〉